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 대형 할인마트 수입 닭고기 사용 용납안돼!

## 홈플러스 수입닭 판매, 닭 할인 판매 금지 요청



닭고기 관련 생산자 단체 종사자들이 홈플러스 수입냉동닭 판매와 국내닭고기 할인판매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 수입닭고기 판매에 국산닭고기 미끼상품 전략

양계인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대형 할인마트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기세이다. 지난 22일 홈플러스 강동점에 양계인들은 물론 닭고기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들었다. 이는 대형할인매장에서 수입육 유통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한 양계인들의 강한 항의를 위한 것으로 국내산 닭고기를 미끼상품으로 내걸고 염가판매 하는 대형할인마트의 횡포에 양계인들의 불만이 폭발한데서 시작되었다.

홈플러스에서는 미국산, 태국산 등 수입 냉동닭고기가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연중 최대 닭고기 수요기인 북철에 국내산 닭고기의 과도한 할인판매를 진행하면서 슈퍼갑 행세를 하며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집회에 앞서 (사)한국토종닭협회와 (사)한국계육협회는 7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시장 개방으로 인해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형할인마트

인 홈플러스의 수입닭고기 판매에 대해 국산 닭고기를 헐값에 미끼상품으로 전략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 폭로했다.

수입닭고기 판매와 닭 할인판매 금지 요청에도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양계인들은 홈플러스 강동점 앞에서 규탄집회를 강행하게 되었다. 닭고기 생산농가와 닭고기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이날 '농가의 생존권을 짓밟는 홈플러스 규탄 집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입냉동닭고기 판매와 가격 후려치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FTA, 사료값 인상 등으로 힘든 생산농가를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생산자와 판매자가 상생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축산물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할인판매하면서 그 가격부담을 생산자에게 떠넘기는 대형할인매장의 슈퍼갑 행태를 그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낮아지는 수입장벽, 판매점의 횡포에 시달리는 생산자들

지난 4월 이마트 항의집회 사태에서 우리는 이마트 측으로부터 수입닭고기를 국산닭고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롯데마

트를 방문하여 수입닭고기 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서 이번 규탄집회까지 생산자들은 수입닭고기에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장개방 정책으로 돌아선 가운데 낮아지는 수입장벽 앞에서 생산자들은 판매점을 돌며 수입닭고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혹서기에 들어서는 요즘, 육계사육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생산자들은 국산닭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뒤로 하고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수입장벽 완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치더라도 무자비하게 들어오는 수입축산물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며 판매점들까지 국내산 축산물 판매를 줄이고, 최대수요기인 북철에 할인 미끼상품으로 전략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생산자들은 대형판매점을 통해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국내산 닭고기로의 전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닭고기 자조금을 통해 국산닭고기 홍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 수입닭 어디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할인마트들의 수입닭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이마트의 수입닭 파문에 이어, 지난 7월에는 홈플러스의 수입닭 판매 및 닭고기 텀핑판매가 이어지면서 양계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최대 닭고기 수요기철인 북철기에 수입닭이 우리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수입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북철을 전후한 5~8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국내 시장이 서서히 수입닭에 밀려나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입된 냉동닭고기는 53,727톤으로 FTA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사)한국식품발전협회 이수동 회장

- ▲ (주)모심푸드 대표
- ▲ 한국 도시락 공업협동조합 부회장
- ▲ 영남이공대 식음료조리학과 겸임교수
- ▲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자문위원
- ▲ 2013년 농림축산부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위원

치맥페스티벌 사무국을 방문한 첫 인상은 분주함 속에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진행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분주함을 넘어 촉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축제준비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치맥 페스티벌’이라는 독특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축제가 탄생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사)한국식품발전협회 이수동 회장도 인터뷰 직전까지 외부 인사들과의 미팅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인터뷰를 위해 사무국을 찾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이수동 회장의 표정에서도 앞서 접한 진행요원들의 진지함과 설렘, 그리고 따스한 배려까지 느낄 수 있었다.

(사)한국식품발전협회 이수동 회장을 만나 '2013 대구치맥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사)한국식품발전협회 이수동 회장은 치맥페스티벌을 대한민국 치킨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알리는 축제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국내산 닭고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맥페스티벌을 만들어 갈 것!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선 양계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 필요  
생산자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 ■ (사)한국식품발전협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한국식품발전협회는 1,800여 중소식품업체들의 정보교류와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에 속하는 식품업체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만 중소식품업체에는 이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중소기업이 식품산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창구역할을 하고자 본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한국식품발전협회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면서도 국가의 지원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회원사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중소식품업체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회원 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및 업계 의견에 대한 대정부 건의, 식품관련법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 식품관련 정보지 발행, 로드푸드(길거리식품) 산업화 등이 있습니다.

### ■ 수입산 닭고기가 3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닭고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산 닭고기를 브랜드화하여 해외에도 대한민국 닭고기는 맛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치맥페스티벌과 같은 프로젝트의 진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대구치맥페스티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예전부터 양계장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구에는 닭똥집 골목이나 닭곱창 골목이 존재할 정도로 닭을 이용한 다양한 부산물 요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멕시카나, 페리카나, 처갓집, 교촌치킨 등 상당수의 치킨프랜차이즈가 대구에서 탄생했고 대구는 치킨의 중주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청타오맥주의 고장 중국 청도와 대구가

자매결연한지 20주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타오맥주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한국식 치킨의 중주도시인 대구에서도 축제를 개최해 문화축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3년전부터 축제에 대한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저희 협회에서는 대구시 관계자분들과 함께 청타오맥주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해 두 페스티벌 간의 후원에 합의했으며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치맥페스티벌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축제는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가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님께서 직접 저희 사무국에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점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양 협회 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내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 ■ 앞으로 치맥페스티벌의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치맥페스티벌이 첫 회인 만큼 저희가 사전에 기획했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진행되었던 부분에서 잘못된 요소를 개선하고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독일의 소시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옥도버페스티벌이라는 세계적인 축제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치맥페스티벌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발전시켜서 한국식 치킨, 즉 국내산 닭고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닭요리가 세계적인 한류식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구치맥페스티벌 관계자들이 성공적인 축제의 진행을 염원하며 개막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HOT ISSUE

0 0 2

# 가축재해보험, 이것만은 알고 가입하자!

## 가입 시 보상금액 적절히 활용하면 농가피해 줄어든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양계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고온스트레스에 약한 닭의 폐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화재(벼락 포함) 및 설해, 풍재(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수재(홍수, 해일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닭이 폐사되었을 때 약관의 보상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축산농가를 위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양계농가는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87%에 이른다고 농협손보 재해보험팀 이종찬 과장은 밝혔다.

농협손보는 가축재해보험 보험금을 (사)대한양계협회에서 제공하는 kg당 시세에 따라 보상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7월 16일 현재 (사)대한양계협회 육계시세는 2,000원/kg이므로 1.5kg의 육계를 사육하는 5만 수 농가의 보험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여기에 가금류의 자기부담금인 5%를 제외한 보험금의 95%인

1억 4천 25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한편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 보상금이 육계 1.5kg 기준 수당 1,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닭이 언제 폐사할지 모르므로 기본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일 뿐 (사)대한양계협회가 발표한 육계 시세 내에서 얼마든지 변동가능하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사)대한양계협회의 육계 시세를 파악해 가입 시 보상금액을 적절히 기재함으로써 사고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험료 설계에 있어서도 피해보상 조건에 대한 사전점검도 필요하다. 똑같은 설해피해 보상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1년 내내 설정하는가 하면 12~1월까지만 설정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이렇듯 보험료 설계 시 지역특성과 농장조건에 맞는 보상 조건을 설정한다면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다.

때 이른 더위로 농가들 사이에선 작년 3월에 신설된 폭염특약에 대한 가입률도 급진하고 있다. 올해 가축재해보험 1,378건 중 폭염특약에 가입한 양계농가는 1,145건으로 83.1%이며

이는 작년 63.7%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폭염특약은 해당 지역에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모두 포함)가 발령되면, 특보 전 24시간부터 특보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된 닭에 대해 농협에서 보상해 주게 된다. 농협손보 지급팀에 따르면 작년 폭염 접수건수가 200여 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이 20억 원 정도 지급되어 평균 1천만 원이 각 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가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힌 농협손보 재해보험팀 이종찬 과장은 “닭이 폐사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가금)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사고가 난 날로부터 되도록 빨리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손보가 밝힌 사고시 가축재해보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농협손보 콜센터(1644-9000)나 지역 농·축협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된다. 농축협은 농가로부터 받은 계약당시 청약서나 기본 서류를 스캔해서 농협손보 지급팀에 보내준다. 지급팀은 서류를 검토한 후 각 지역 손해

사정업체에게 양계농가에 당일 방문을 요청하고, 손해사정업체는 농가를 방문한 후 7일(늦게는 2주)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해 농협손보에 보내준다. 농협손보는 이를 취합해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2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 여름에는 이른 폭염뿐만 아니라 잦은 폭우로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폭우, 폭설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농가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각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각 특약을 검토하여 상황과 형편에 맞는 특약을 선별하고 신청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  
(사)한국계육협회(☎031-707-5722),  
(사)한국토종닭협회(☎02-3437-9906)  
로 전화하십시오.

## 가금분야 LED 점등 연구결과 세계 저명 학술지에 보고

### 세계 최초 개발된 가금 LED 점등기술 Poultry Science 게재됨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가금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으며 가금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미국가금학회지(Poultry Science)에 게재되어 다시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기술에 대한 3년간의 연구결과, 산란계는 적색 파장 LED 점등시 백열전구 점등시와 비교하여 산란수가 7.8% 증

가, 육계는 황색 LED 점등시 2.9% 체중 향상을 보이며, 종오리에서는 적색 LED 점등 활용시 산란율 4.3% 증가, 육용오리 녹색 LED 점등시는 7.8% 체중 향상 효과를 나타내어 가금 중에 따라 최적 점등 파장 활용시 생산성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는 가금분야 LED 전구 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지금까지 3년간 양계농가 1,022 가구에 LED 전구를 보급하여 왔다.

이러한 국립축산과학원의 가금분야

LED 점등 활용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이 연속해서 세계 저명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Avian Biology Research에 산란계의 LED 점등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2012년에 3월에 게재되었으며, 육계에 대한 LED 점등효과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2013년 6월 Poultry Science에 게재되었다. 또한 현재 종오리와 육용오리에 대한 LED 점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은 Poultry Science에 투고되어 검토 중에 있다. Poultry Science는 인용지수(IF)가 1.728이고 가금학계에서는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세계적인 학술지이며, 이번 논문 등재로 국내 LED 점등기술이 국제 학술계에 정식 인정을 받게 됐다.

국립축산과학원 김민지 연구사는 “LED 연구 결과를 Poultry Science 등에 게재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LED 점등기술이 산업계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가에서는 LED 전구가 전력소모도 절감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백열전구에서 LED 전구로 점등시설을 교체한 농가들의 경우 전력소모가 예전의 30% 정도밖에 안 되어 약 7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 아태가금학회 조직위원회 개최

### 각 조직위원회별 준비상황 점검

2014 아태가금학회(APPC) 조직위원회(위원장 한재용)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조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4년 10월 19~2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아태가금학회(APPC) 학술행사를 앞두고 각 조직위원회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다. 조직위원회는 곧 홈페이지

지를 개방하고 일정에 따라 예산확보, 행사계획 확정, 초록과 논문 접수, 전시업체 참여 독려 등 국내외 관련인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비(강의, 교재, 여행 스케줄 포함)는 1인 40여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양계인 등 농가를 위해 특별 할

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있었던 한국가금학회 임원회의에서는 ‘30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창립 40주년과 겸해 오는 11월 8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키로 하고,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창립 40주년 원로 특강과 특별포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HOT ISSUE

0 0 3

# 전국 부화장 실태조사, 양계전용 168개소로 확인

개인 부화장들, 시설 노후화 및 계열사 대형부화장 설립 등으로 위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부화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 총 188개소의 부화장이 있으며, 그중 닭을 전용으로 하는 부화장은 168개소로 나타났다. 닭과 오리 등 겸해서 부화하는 곳은 20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들어 부화장들이 병아리가 아닌 종란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이루어졌다. 종란 납품으로 인해 실제로 기존 개인 부화장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존속 자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선 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국 등록된 닭전용 부화장 16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참여한 육계 부화장은 45개소로 원종계가 4곳, 육계는 41곳(개인 27, 계열사 14)으로 나타났다. 개인 육계부화장 27개소의 경우 입란능력이 총 4,717천개로 계열사(계열사 14소, 16,310천개) 기준으로 28.9% 수준의 입란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형태로 보면 계열사

계약판매(협회시세, 상하한가도입 등)가 10개소, 일반 판매가 8개소, 계열사와 일반 판매가 5개소, 위탁부화가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부화장들은 시설 노후화와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난각 및 부화폐기물의 자원화처리의 어려움은 물론 계열사 직영의 대형부화장 설립에 따른 개인 사업자의 위축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 따르면 폐·휴업 부화장 실태조사 및 자료를 취합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인부화장의 보호, 육성방안을 중계부화산업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계종별 부화장 실태

계	168	
원종계	4	
육계	개인	계열사
	27	14
산란계	11	
토종닭	22	
백세미	5	
폐휴업	11	
연구용	3	
연락불가	71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년 하반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검역원, 차량등록 저조한 동물약품, 퇴비, 왕겨 운반차량 집중 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원)에서 지난해 9월 7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차량등록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등록·GPS단말기 미장착 차량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단속결과, 지자체의 단속 소홀과 검역원의 단속실적이 미흡하여 하반기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차량등록 및 GPS단말기 장착 차량을 당초 6만5천대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7월 5일 기준 등록차량은 61%에 그치고 있다.

이에 검역원은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키로 하였다. 도축장·가축시장·사료제조장 등 차량출입이 많은 축산시설 출입구에서 단속을 시행하며, 단속실적이 저조한 동물약품, 퇴비, 왕겨 운반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차량등록대상 차량은 농장 내의 모든 차량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가축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운반, 퇴비운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및 방역, 기계수리 등 농장 내에서 사육과 관련

된 화물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등록대상이지만, 개인용 승용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차량등록대상 농가는 불이익이

단속사항

단속항목	비고
차량등록	- 주기적 방문차량,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시설출입차량 유형 참조) 벌금(500만원 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운영	- 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여부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여부 - 차량무선인식장치 정상 작동 및 오류·장애에 따른 조치여부 벌금(500만원 이하) 과태료(500만원 이하)
교육이수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www.farmedu.kr에서 확인) 과태료(500만원 이하)

\* 차량무선인식장치 오류·장애에 따른 미조치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장 발부

##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 실시

가금분야 전문수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오진우려 지적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면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한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오·남용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97개 품목을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하고 수의사의 처방으로만 구매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양계농가가 동물용의약품 구매할 경우에는 처방대상 약품인

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용의약품 중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약품(유효성분 함유)은 용기·포장·첨부분서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농가는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

수의사처방제 실시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양계농가의 경제적 부담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예 : 5천원)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행초기 1년간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고, 처방전은 동일한 개체별 처방이 아니라 같은 계사 내의 가축에 대해서는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축군별 처방)이 가능토록 했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양계농가들의 동물

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뿐만 아니라 처방방법 등을 알리는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에서 수의사처방제 시행을 15일 앞두고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가금분야 관계자는 가금전문 수의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오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갑작스런 질병 증상시 가축병원의 휴일이나 야간 처방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타 단체에서도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수의사회에서는 공수의사 활용,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생·항균제 유효성분

물질명	
Cefovecin	Minocycline
Cefquinome	Oleandomycin
Ceftiofur	Oxytetracycline
Chlortetracycline	Roxithromycin
Danofloxacin	Sedecamycin
Doxycycline	Spiramycin
Enrofloxacin	Tetracycline
Erythromycin	Tilmicosin
Kitasamycin	Tulathromycin
Marbofloxacin	Tylosin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

생물학적 제제

단일	복합
뉴캐슬병	뉴캐슬병 + 전염성기관지염



지부탐방

지부의 정부지원확대를 위한 리더의 역할 중요

정부 지원, 자조금 낸 농가 우선적으로



고양육계지부 남상길 지부장

지난 7월 2일 고양지부에서 매년 회원단합을 위해 진행된 북놀이에 참가했다. 북놀이는 매년 북경기에 앞서 회원농가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회원간의 단합을 위해 만든 자리로 남상길 지부장이 붙인 고양지부의 연례행사이다. 17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고양지부는 단란한 인원으로 서로 형 동생처럼 가족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회원수가 적은 탓에 북놀이에는 부부동반, 양계를 이어받는 1, 2세대도 편하게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화목한 자리였다. 아무래도 일산, 고양지역이 빠

르게 도시화되면서 많은 농가가 폐업한 상태이다. 따라서 회원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어 현재 회원농가간의 돈독한 유대감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남상길 지부장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양계지원사업을 건의하고 있으며, 타지역에 비해 농가가 받는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이는 고양시 지역의 토박이인 남상길 지부장의 지자체와의 돈독한 관계유지가 한몫했다. 최근 농가발전기 지원사업을 받아 고양시지부 3개 농가에 발전기를 설치키로 했으며 자랑스러워했다. “백신지원사업과 기타 농가지원사업에 있어 고양시지부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단위 지부에 벤치마킹된 사례도 많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ND백신, 감보로 백신 외에도 비타민제, 각종 양계시설지원자금을 받아오고 있다고

자부하며,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처럼 지속적으로 양계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하면 지자체 예산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부회원을 위한 지부장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의 농가 선정에는 자조금을 낸 농가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어 고양지부 내에서도 농가의 자발적인 자조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고양시지부의 창립부터 벌써 13년째 고양지부장을 맡고 있는 남상길 지부장은 올해에도 지부장으로 추대되면서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고양지부를 이끌어나가게 됐다. 회원수가 많지 않은 고양지부는 지부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사무실을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한다. 사무실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 남상길 지부장과 진용일 총무가 농가와 1:1로 더욱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양지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남상길 지부장은 앞으로도 고양지부 회원들이 농가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회원간의 단합을 위해 진행된 고양육계지부 북놀이 모습



육계질병가이드 / 괴사성장염의 예방대책

Q. 괴사성장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지난 호에서 괴사성장염의 원인을 얘기할 때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클로스트리디움균이 과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장관 내에서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콕시듐증입니다. 콕시듐 원충에 감염된 닭의 장은 장점막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혈장단백 증가, 미소화사료의 정체, 점액 증가 등 클로스트리디움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되고 독소를 만들어 냅니다. 콕시듐이 발생하는 농장의 거의 대부분 괴사성장염이 연달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콕시듐을 예방하기 위해 항콕시듐제를 사용한다면 장염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닭의 장내 정상세균총의 변화입니다. 닭의 정상세균총의 분포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15일령 이후 일주일간의 시기에 가장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입니다. 이때 소화기 질환이 다발하는 시기입니다. 후기사료교체 후 분변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생균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로 사료의 소화율입니다. 사료의 점성이 증가하면 소화시간이 길어지고, 장관 내 정체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클로스트리디움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사료의 점성이 증가하므로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아미노산 비율을 높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양관리와 관련하여 더위와 추위 등 환경스트레스와 여름철이나 겨울철 온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고, 깔짚이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보로병이 있을 때는 면역이 억제되어 더 쉽게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감보로병 예방백신을 접종하여야 하고, 설치류나 야생조류가 들어와서 다양한 병원체와 기생충을 전파시킬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차단방역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의 면역을 높여주는 방법과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괴사성장염 뿐 아니라 전반적인 닭의 면역을 증가시키는 길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juyoon@bansuk.biz)

(제공 : 반석 기금진료 연구소)

농협목우촌, 복날 삼계탕 제품 판매 중



농협목우촌(대표이사 성병덕)은 삼복을 맞이하여 다양한 삼계탕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안심삼계탕’은 신선한 영계와 인삼, 대추, 마늘, 찹쌀 등을 넣은 제품이며, ‘누룽지오곡삼계탕’은 기본적인 삼계탕에 웰빙 이미지의 누룽지와 보리·대두·차조·흑미·수수 등을 넣은 오곡을 부재료로 넣어 구수한 누룽지와 담백한 삼계탕 맛의 조화가 일품인 제품이다. 또한 ‘목우촌삼계탕’은 신선한 영계와 인삼, 대추, 마늘, 찹쌀 등에 황기 등을 넣고 고아낸 육수로 맛을

더한 정통 삼계탕이다. 농협목우촌의 삼계탕 제품들은 끓는 물에 봉지채 넣고 약 8~10분간 데운 후 먹으면 될 정도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계탕 제품을 생산하는 음성계육공장은 1999년 11월 국내 육류 중 최초로 주한미군에 닭고기를 납품했으며 2011년~2013년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닭고기 부문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닭고기제품 생산에 있어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예로부터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삼복더위라 하여 선조들은 다양한 보양 음식을 즐겨왔고, 그 중에서도 삼계탕은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체내에 부족한 기운을 돋워주는 여름철 1순위 보양음식이었다”고 전하며 “농협목우촌에서 100% 국내산 닭고기와 인삼으로 생산·판매하는 삼계탕 제품들을 통해 올 여름 불볕더위를 든든하게 이겨나가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5차 관리위원회,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예산 변경(안) 의결



제 5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진행 모습

####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소비홍보 사업 증액 편성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7월 19일 제1축산회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제 5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예산 변경(안)과 닭고기자조금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이홍재 위원장은 “연초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초복에는 작년 대비 20~30%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된 데에는 관리위원 및 자조금의 역할이 큰 것 같다”고 격려하며, 앞으로 수입육 문제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관리위원회는 전차회의록 보고와 함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종계도태가 아닌 수급조절위원회가 운영되어 농림부 차원에서 보다 공신력과 집행력을 갖춘 수급조절이 이뤄지리라 기대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결사항으로는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예산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관리위원들은 ‘종계감축 수급조절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작게 집행됨에 따라 불용방지를 위해 수급안정 예산을 전용하여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소비홍보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 관리위원은 앞으로 소비홍보 사업을 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각 단체 별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모든 단체의 역량을 한데 뭉쳐서 소비홍보를 진행한다던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홍재 위원장은 내년에 자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단체가 함께 모여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리위원회는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예산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경영전산화 사업(신규사업)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5천만원 증액 신설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듬어서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관리위원회는 닭고기자조금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사항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관리위원과 대의원 임기가 올 연말에 끝남에 따라 9~10월 대의원선거를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하였다. 첫째로 예방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백신에 대해 처방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양계의 경우 상당부분 예방백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백신의 종류가 제각각이어서 백신에 대한 처방제도의 제외가 필요한 만큼 개선을 요구하였다.

둘째로 양계관련 수의사가 적어 처방

전을 받기 힘들고 양계전공자가 아닌 수의사가 처방을 발행하여 오진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든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의사 처방제 도입시 수의사 인력충원 없이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될 경우 자칫 독점체제 형태의 가축병원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수의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사)대한양계협회, 법률상담코너 개설



김태욱 변호사

위해 7월 21일부터 홈페이지에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 운영해 나가고 있다.

홈페이지(<http://www.poultry.or.kr>) 참여마당에 사이트를 개설한 법률상담 코너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양계인은 누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회원 농가들에게 양계농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면 축산전문 변호사인 김태욱 변호사(사진)가 무료로 상담을 맡아 자세하게 답을 주게 된다.

김태욱 변호사는 농업후계자로서 농장을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현장경험이 풍부하여 농가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998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법무법인 정평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에 몸담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 (사)한국계육협회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관련

##### 각 회원사에 의견제출 공문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6월 4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보존 및 유통기준의 냉동제품의 해동 후 재냉동 규정 개정’과 관련 냉동제품은 해동 후 재냉동할 수 없으나,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포장처리업계가 냉동식육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을 위하여 해동 후 신속하게 재냉동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냉동식육의 처리 시 해동이

필요한 관련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위의 내용은 관련 수입업자들만을 위한 조치일 뿐, 소비자와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려는 공급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조치이므로 수입산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여론이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지난 7월 4일 각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26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대한양계협회



#### 본회,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앞서 개선사항 의견 제출

올해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에 앞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

준동)에서는 수의사 처방제에 앞서 농가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요

#### ‘월간 닭고기’ 창간 18주년 기념

##### 애독자 이벤트 실시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닭고기’

가 2013년 7월호로 창간 18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의미에서 ‘창간 18주년 기념



마크 찾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8월 14일(당일 우편 소인 유효)까지로,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7월호 맨 뒷면에 있는 애독자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hj@chicken.or.kr)을 이용해서 응모하

시면 정답자 중 18분을 추첨하여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9월 초 본회 홈페이지와 월간 닭고기를 통해 발표한다. ■ 홈페이지 : www.chicken.or.kr

## 2013 대구 치맥페스티벌, 치킨문화축제의 새장 열어



토종닭협회는 방문객들에게 토종닭의 맛과 영양을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일 35℃를 육박하던 불볕더위도 치맥페스티벌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추지는 못했다.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한식 세계화를 이끈다는 콘셉트로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대구 두류공원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치맥페스티벌은 첫날 '닭 위령제'를 시작으로 공연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이 참석하여 김범일 대구시장, 이수동 한국식품발

전협회장 등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는 대구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이 교촌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팡팡치킨, 별별치킨, 최홍만의 치킨파이터 등 다양한 치킨업체의 부스를 찾아왔다. 특히 (사)한국토종닭협회의 토종닭훈제 무료시식 코너에는 방문객들의 긴 줄로 인해 장사진을 이루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 2012년 육계 생산비 kg당 1,361원

사료비, 육계 생산비 중 62% 차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육계생산비가 kg당 1,361원으로 전년 1,377원대비 1.2%(16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육계 생산비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체 생산비 중 사료비가 62%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사료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사료수출국의 공급이 감소하고 중국 등 개도국의 성장으로 사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 사료비가 상승하며 국내 양계농가들의 생산비 증가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동향을 보면 10kg당 '10년 7,963원, '11년 8,297원, '12년 8,445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구성비가 많은 비용은 가축비 18.7%와 수도광열비 4.4%이며, 가축비는 2010년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도광열비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농가들을 위한 정부의 전기료나 연료비 등을 지출액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정부의 농축산분야의 예산삭감에 이어 농가에 주어지던 비과세 품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산비는 해를 더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 육계생체 10kg당 생산비 (조사기간:2012.01.01~201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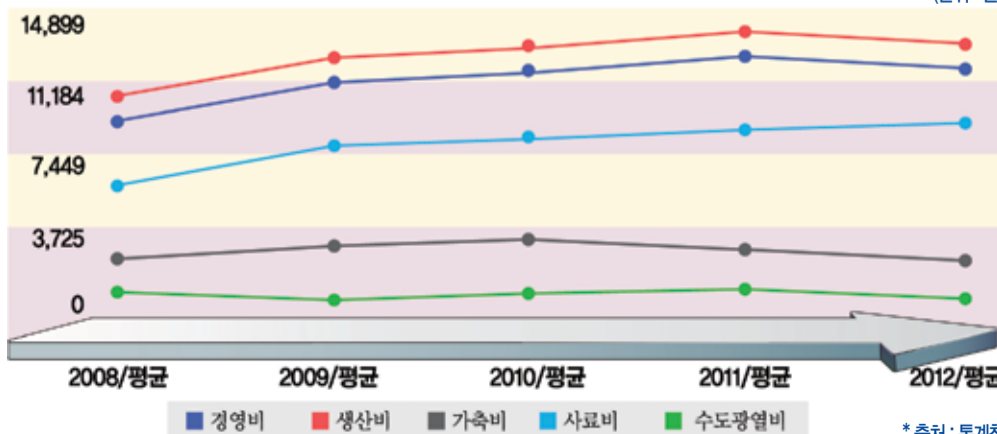
(단위: 원)

비목	사육규모				평균	구성비 (%)	Raising size
	30,000 마리 미만	30,000~39,999	40,000~49,999	50,000 마리 이상			Cost item
가축비	2,426	2,643	2,719	2,516	2,551	18.7	Livestock cost
사료비	8,203	8,586	8,398	8,613	8,445	62.0	Feed cost
수도광열비	599	641	603	594	596	4.4	Water, Power & Fuel cost
방역치료비	255	276	318	315	301	2.2	Veterinary & Medicine cost
농구비	450	346	395	328	349	2.6	Farm implements cost
(감가상각비)	398	282	336	288	302	2.2	(Depreciation)
(수리유지비)	46	56	48	36	41	0.3	(Repair expenses)
(임차료)	1	1	3	2	2	0.0	(Rent)
(소농구비)	5	7	8	2	4	0.0	(Small implements cost)
영농시설비	260	201	220	234	228	1.7	Farm building & Facilities cost
(감가상각비)	184	168	175	192	184	1.4	(Depreciation)
(수리유지비)	48	24	35	40	38	0.3	(Repair maintenance)
(임차료)	28	9	10	2	6	0.0	(Rent)
제재료비	245	239	208	250	239	1.8	Miscellaneous materials cost
차입금이자	69	75	99	74	77	0.6	Interest on borrowed capital
토지임차료	13	23	2	7	9	0.1	Land rent
고용노동비	96	144	82	112	109	0.8	Hired labor cost
분뇨처리비	18	22	34	27	26	0.2	Excretion disposal cost
생산관리비	36	38	36	26	30	0.2	Production management cost
기타비용	32	30	50	49	44	0.3	Other expenses
소계(A)	12,702	13,264	13,164	13,145	13,004	95.4	Sub-total cost
자가노동비	569	496	596	553	548	4.0	Family labor cost
자본용역비	62	61	69	69	66	0.5	Capital service cost
토지용역비	4	3	4	7	6	0.0	Land service cost
비용합계(B)	13,337	13,824	13,833	13,774	13,624	100.0	Total cost
부산물수입(C)	7	34	2	8	11		By-products
경영비(A-C)	12,695	13,230	13,162	13,137	12,993		Operating cost
생산비(B-C)	13,330	13,790	13,831	13,766	13,613		Production cost
판매시체중(kg)	1.52	1.53	1.45	1.42	1.45		Marketed weight

\* 출처: 통계청

## 육계생체 10kg당 생산비 (조사기간:2008~2012)

(단위: 원)



\* 출처: 통계청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 닭안심 토마토 크림 스파게티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에게 항암효과와 면역력 강화가 있는 토마토와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닭고기를 결합한 요리를 선보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재료** 닭안심 150g, 토마토 2개, 양파 1/2개, 생크림 1/2컵, 마늘 2쪽, 파프리카가루 2큰 술, 스파게티면 200g, 소금, 흰 후추, 파슬리가루, 식용유

- Cooking**
1. 닭안심은 결의 반대로 길쭉하게(5cm) 썰어 파프리카가루 1큰 술, 소금, 흰 후추로 밑간을 해준다.
  2. 토마토는 씨를 발라내고 1cm 각둑썰기를 한다.
  3. 양파는 다지고 마늘은 편으로 썬다.
  4.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①의 닭안심을 밝은 갈색이 나게 살짝 구워준다.
  5.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 양파를 넣고 볶다가 토마토, ④의 닭고기와 남은 파프리카가루를 넣고 볶는다.
  6. 닭안심이 익으면 생크림을 넣고 다시 끓이면서 소금, 흰 후추로 간을 한다.
  7. 스파게티면은 소금, 식용유를 넣은 끓는 물에 10분에서 12분 삶아 건져 접시에 담고 ⑥의 소스를 붓고 파슬리가루를 뿌린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 퀴즈 낱말맞추기

1		14		13	
2				12	
			11		
3	4			10	9
	5		7		
6			8		

### ◇ 가로풀이 ✨ ✨

- ② 한약을 달이는 기구
- ③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현상 사이의 틈
- ⑤ 연극이나 소설 따위에서,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끝을 내는 마지막 장면
- ⑥ 초자연적 존재나 유사 이전의 민족사 따위의 신성한 이야기
- ⑧ 어떤 활동이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본래의 중심지
- ⑩ 사냥하는 데 쓰는 총
- ⑪ 청하는 바를 들어줌
- ⑫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
- ⑭ 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

### ◇ 세로풀이

- ① 축산물의 약제 잔류를 막기 위하여 가축의 도살 전 일정기간 약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해야 하는 기간
- ④ 아주 커짐, 또는 아주 크게 함
- ⑦ 베끼거나 고친 것에 대하여 근본이 되는 서류나 문건
- ⑨ 어떤 상품을 한데 합쳐서 도맡아 파는 곳
- ③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거나 흩어지는 모양
- ⑫ 정해진 기간이나 일의 처음이 되는 때

### 52호 정답

윤	간	금	홍	의
규		명	하	
울	묘		는	간
	부	우		이
하	윤		이	음
	향	의	정	향



## 양계 비법전수 계사 깔짚이 왜 중요한가요? 선택요령을 알려주세요.

깔짚 관리는 계군의 건강 및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육계의 깔짚은 바닥의 오염과 열의 발산을 방지하고 계분을 희석하여 표면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 준다. 또한 계분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닭이 호흡 시 발생하는 수분을 흡수하여 닭이 쉬고 성장하는데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준다. 바닥 깔짚은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5cm 이상, 흙바닥인 경우 10cm 이상 두껍게 깔아준다. 깔짚의 구비조건으로는 수분이 20%~25% 함유된 재료로써, 수분의 흡수력이 좋고 통기성이 좋으며 수분의 증발력이 양호해야 하며 값이 싸고 구하기 쉬우며 먼지나 곰팡이 등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닭에게 폭신하고 안락감을 줄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깔짚으로 쓰는 재료에는 왕겨, 톱밥, 대팻밥, 벼짚, 목재칩, 종이, 모래 등

이 있는데 재료별로 장단점이 있고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므로 각 농장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한다. 깔짚은 첫 모이에서 출하까지 딱딱한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깔짚이 멍치거나 습하면(수분 50%이상) 다리 부스럼 딱지나 흥부수증이 많이 발생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